

두산인문극장 2025: 지역 LOCAL

저출산, 설명할 수 없는 명백한 현상 임동근

일시: 2025년 4월 28일 7:30-9:30pm

장소: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본 강연은 촬영할 수 없습니다.

*강연 후 발송하는 문자 설문에 응답 부탁드립니다.

‘저출산’, 오늘날 누구나 한 번씩 들어봤을 만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저출산이 무슨 뜻인지 말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단지 요즘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다, 혹은 태어나는 아이가 별로 없다는 ‘저출생’과 비슷한 의미로 사회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저출산’은 지금과 같은 출산수로는 현재 인구가 유지되기 힘들다고 판단하는 지표에 따라 명명되는 말입니다. 오늘 강의에서 이 지표를 포함한 다양한 생각들을 검토할 것입니다.

주요 논의 내용

- ‘출산’은 미지의 영역
- ‘출산’을 이해하려는 다양한 노력들
- 알면 알수록 설명할 수 없는 저출산

미지의 영역인 ‘출산’을 다루는 지식의 출현

인구학에서 출산은 여전히 미지의 영역입니다. 인구학은 사망표에서 출발한 학문이고, 사망은 보험과 연금이라는 지식이 가치화되는 토대가 있었습니다. 반면, 출산의 지식은 정부 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연결된 수많은 사회 경제적 네트워크에 속하지만, 누가 이 지식을 구매할 것인가? 라는 점에서 지식의 시장은 크게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근대 학문이 본격적으로 출산을 설명한 것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이고, 그것도 인구학이 아닌 경제학이었습니다.

인구의 지식이 발전하는 과정을 서구를 중심으로 보면, 17-18세기 출산은 사회의 명운을 결

정했는데, 그 이유는 전쟁이었습니다. 17세기 유럽은 100년 동안 전쟁이 없던 해가 단 7년에 불과할 정도로 전쟁이 빈번했고, 지속적인 전쟁으로 인한 인구 손실의 대책으로 출산을 장려합니다. 하지만 당시의 인구는 인간 이외의 다른 생산수단(가축, 토지 등)과 유사하게 바라봅니다. 국가의 힘을 논하면서 사람, 말, 소 등이 나열되는 식입니다.

인간이 다른 생산수단과 질적인 차이를 보이는 순간은 전쟁이었고, 특히 총기 사용이었습니다. 물자가 풍부함에도 병사가 없으면 전쟁의 승리를 보장할 수 없었고, 소총은 칼과 활 등 기존에 중요했던 병사 능력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았습니다. 또한 18세기, 지난 세기부터 이어져 온 전쟁의 충격으로 몇몇 황폐화되는 지역의 출현과 인구 감소 현상이 뚜렷하게 관찰되기 시작합니다.

전쟁이나 전염병이 없는 상황에서 인구가 감소한다는 사실은 권력 집단에서는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인구 감소는 국가 쇠퇴의 전조로 여기고, 출산하지 않는 개인은 비도덕적이라 비난하는 등 다산을 장려하는 정책들이 시작되고 인간을 하나의 수로 보는 과학이 출현합니다. 학문적 관찰의 대상이 되는 인간, 그리고 이어지는 출생과 사망의 역동을 설명하고 싶어 하는 지식적 욕구 등이 출현한 겁니다.

‘출산’의 결정요인을 알기 위한 노력

1956년 데이비스와 블레이크(Kingley Davis, Judith Blake)는 출산을 설명하는 이론의 틀을 발표합니다. 전통, 종교 등이 영향을 미치는 사회규범, 계층, 직업 등 경제 사회 구조 내 개인의 특성이 그가 제시한 출산에 영향을 끼치는 원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원인들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양한 사회, 다양한 처지 등 출산에 미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후 연구가 축적됨에 따라 존 봉가츠(John Bongaarts)는 ‘밀접한 결정요인’을 추출합니다.

이후 1949년 UN은 인구조사 방법을 『인구 연구』 제4호로 발표합니다. 이제 UN의 지도 아래 전 세계의 출산율이 국가별로 조사되기 시작하고, 1960년대가 지나면 각 국가별로 출산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만큼 숫자가 제시됩니다. 지구의 인구가 얼마이고, 인구는 얼마나 증가할 거고, 세계 인구 몇십억 돌파 등등 하면서 인구와 관련된 지식들이 재편됩니다. 이런 파악이 가능한 것은 지난 10년간 제3세계에서 진행된 가족계획 정책의 효과이기도 했고, 출산 및 사망 자료의 축적이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1970년대 출산율의 급증은 없다 하더라도 사망률의 감소는 인구 증가를 유발할 것이라 예측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1970년 12월 UN 총회는 1974년을 ‘세계 인구의 해’로 결정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2차세계대전 이후 태어난 세대가 1970년대에 들어서 출산 연령대가 된다는 사실, 즉 당시의 연령구조만으로도 새로운 출생자들의 급증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향후 20~30년 동안 출산할 연령대가 이미 연령구조로 파악되기 때문에 이제 30년 뒤인 2000년의 인구 예측도 가능한 일이 되었고, 그 추정 결과가 1970년 36억 명의 지구 인구가 2000년 65억으로 거의 두배 증가한다는 추정이었습니다.

1980년대 역사학, 인류학, 사회학, 심리학, 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출산을 각자의 방식으로 다룹니다. 가족과 어린이의 위상과 관련해 베이비 붐과 산아제한을 설명하기도 하고, 부모에서부터 자녀로 이어지는 ‘부의 흐름’을 분석하며 경제적 혹은 사회적으로 ‘충족’이란 말로 표현되는 가족의 가치와 출산을 연결합니다. 각 국가의 정치, 사회, 경제적 환경을 다층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방법론적 접근이 제시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학문의 이야기에서 단연 오늘날 출산의 이론을 만들어 가는 것은 경제학이었습니다.

출산의 경제학과 설명할 수 없는 저출산

처음 출산을 경제학의 주요 언어로 설명한 사람은 하비 라이벤슈타인(Harvey Leibenstein)입니다. 1957년 그는 ‘아이를 원하는 것’(아동에 대한 수요)은 ‘내구재’ 소비 수요의 미시경제이론의 틀로 다룰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음식, 집, 여행, 등등 개인이 소비하는 여러 소비재 중 하나가 ‘출산’입니다. 그에 따르면 단순히 소득이 많다고 다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에 지출하는 소비는 계급별로 다르기 때문에 빈민이 다자녀를 갖기도 하고 부자들도 소수의 아이를 가지기도 합니다.

이런 출산의 경제학적 해석이 발전하는 시기가 전 세계의 가족계획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시기와 같은 시기입니다. 위의 각 이론과 주장 중 여러 단편들이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제3세계의 인구정책을 결정했고, 선진국 내의 사회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경제학과 가족계획 프로그램은 사회 경제적인 여러 변수들을 알 수만 있다면, 지금의 출산율을 설명할 수 있고, 각 변수에 정치적 힘을 가하면 출산율을 조절할 수 있다는 신념 혹은 희망을 낳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젠더 문제, 사회적 가치의 문제, 사회생물학적 견해 등이 뒤섞이며 출산은 때론 인간 생명체를 탐구하는 과학적인 이야기로, 때론 국가 및 지배 이데올로기의 문제로, 때론 일상생활이란 미시사회의 이야기로 등장합니다.

이렇듯 출산을 다루는 여러 학문의 이야기는 20세기 중반 이후 진행된, 비교적 짧은 시기의 논의일 뿐입니다. 1970-80년대의 여러 이야기들은 출산을 설명하는 명쾌한 지식을 만들지 않습니다. 2000년대 이후 저출산이라는 전 세계에 만연한 인구학적 현상은 어쩌면 단일한 출산 이론이

불가능하다는 선언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회경제적 변수가 다 제각각인 나라에서 공통된 현상을 도출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찾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자문해 봅니다. 이 강의에서 제가 하는 마지막 이야기는 알면 알수록 출산의 사회적 메커니즘은 미궁에 빠지는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소비되는 저출산의 이야기는 점점 더 단순해진다는 것입니다.

임동근

도시지리학자. 서울대학교 도시공학과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받은 후, 프랑스 파리 7 대학에서 지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도시공간을 단순한 물리적 환경이 아닌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맥락에서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다. 현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박물관 연구원으로 재직하며 축소 도시 문제, 식민지 시기 교육 공간 연구 등으로 관심 영역을 확장하며 한국 사회의 공간적 변화를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있다. 저서로 『메트로폴리스 서울의 탄생』, 『서울에서 유목하기』 등이 있으며, 리처드 세넷의 『살과 돌』을 비롯한 주요 도시이론서들을 번역했다.